

# 협회 동정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제1차 회의

일시: 1995. 4. 13 (목)

장소: 상의클럽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들의 발족기념 촬영모습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현판식장면 (왼쪽부터  
손봉호 초대위원장,  
경상현 정보통신부장관).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공식발족

다가올 정보사회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정착할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공식 발족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 13일 대한상공회의소 상의클럽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초대 위원장에 孫鳳鎬 경실련 공동

[표 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

위원장	孫鳳鎬	경제정의실천시민운동연합 共同代表
부위원장	宋基方 申範植	辯護士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常勤副會長
위원	姜智遠 金勇瑞 羅亨洙 安秉禧 李成海 李御寧 李熾淑 李哲洙 印輔吉	사법연수원 教授 쌍용컴퓨터 社長 KBS해설 委員長 서울대 教授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지원국 局長 이화여대 席座教授 한국여성단체협의회 會長 한국전산원 院長 조선일보사 常務理事

[표 2] 음성심의위원회 위원

위원장	權二鉉	소비자보호원 常任理事
부위원장	金玉順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研究室長
위원	金起泰 金南浩 金泰高 尹邦夫 李勝奎 李裁泰 全元策	한국방송개발연구원 방송정책연구실 室長 서울공보사 社長 한국통신 고도통신사업국 局長 연세의료원 가정의학과 課長 문화체육부 어문과 課長 정보통신부 부가통신과 課長 辯護士

[표 3] 비음성심의위원회 위원

위원장	李疇憲	한국외국어대 教授
위원	金旼宣 姜 成 成在洙 孫永秀 李相吉 李裁泰 李漢淳 崔秉堯	천리안 주부동우회 會長 辯護士 정보교사단 委員長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진흥부 部長 한국PC통신협의회 會長 정보통신부 부가통신과 課長 큰들 代表 한국PC통신 情報開發委員

대표, 부위원장에 宋基方 변호사, 우리협회 신범식 상근부회장을 각각 선출하고 현호중 상무이사를 사무국장으로 지명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회칙(안),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안), 95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안) 등이 상정돼 논의끝에 의결됐다. 이와함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 13일 경상현 정보통신부 장관, 손봉호 초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 산하에 음성정보심의위원회, 비음성정보심의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사무국과 불건전정보신고센터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중점사업으로 건전한 정보문화를 조성키 위해 정보윤리규범인 '정보통신윤리강령'을 제정키로 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 6일 발효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의한 법정기구로 출범했으며 정보통신부 장관의 위촉에 따라 학계 2명, 법조계 2명, 언론계 2명, 사회단체 2명, 업계 1명, 관련기관 2명, 정부 1명 등 각계 인사 12명으로 구성됐다.

## 멀티미디어협의회 제5차 집행부 회의 개최

우리협회 멀티미디어협의회는 지난 3월 3일 타워호텔에서 제5차 집행부 회의를 김건중 위원장(삼성전자), 박한규 부위원장(연세대 교수), 이진기 Content분과위원장(현대미디어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95춘계 멀티미디어 세미나 개최와 관련한 세부일정 조정, 일본 JMF대표단 방한에 따른 협력방안, '95 멀티미디어협의회 운영계획등이 논의됐다.

일본 JMF대표단 방한에 따른 협력방안으로는 일본 JMF대표단과 멀티미디어협의회 집행위원, 산업계, ETRI등 관계자들이 함께 하는 오찬 개최가 논의됐으며, 향후 개최되는 제1차 아시아 정보통신산업교류회의에 멀티미디어협의회가 참가하는 방식등이 협의됐다.

또한 '95 멀티미디어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95년도 멀티미디어 협의회 각 분과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논의들이 활발히 개진되었다. 특히 미국, 일본의 멀티미디어 관련 전시회등에 시찰단을 파견하여 멀티미디어에 대한 상세한 조사와 분석을 수행키로 하고 그 성과를 보고대회 개최등으로



▲ 「'95 한·일 멀티미디어 세미나」에서는 선진국의 멀티미디어 정책과 국내의 이용실태등이 논의됐다.

가시화해 멀티미디어 마인드를 확산키로 했다.

### 「'95 한·일 멀티미디어 세미나」개최

우리협회는 지난 3월 20일 전경련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95 한·일 멀티미디어 세미나」를 200여명의 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浜野保樹 일본 방송교육개발센터 조교수는 <디지털화와 네트워크-멀티미디어 2대요소>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멀티미디어로 총칭되고 있는 현재의 사회문화적·산업적 혁명

의 본질은 디지털이 되는 것, 즉 정보를 디지털로 일원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거대시장을 여는 여명인 멀티미디어는 앞으로는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1세기의 새로운 메가인더스트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CD-ROM 현황과 발전방향>을 통해 이만재 박사(솔빛조선미디어 대표이사)는 “멀티미디어의 실제적 견인 역할을 할 CD-ROM은 장차 네트워크 환경과의 융합, 일반출판물과의 융합, 독자적 장르의 성장 등 여러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지식산업인 만큼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선채 박사(현대미디어시스템개발실 실장)는 <기업환경에서의 멀티미디어 활용>을 통해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업들의 멀티미디어시스템 활용에 대해 사례별로 설명했다. 마지막 연사로 나온 한국전산원의 송관호 박사는 <초고속망과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통해 “초고속정보망은 다양한 멀티미디어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정보화사회의 기반구조임”을 강조했다.

이 세미나는 선진국의 멀티미디어 정책과 국내의 기술동향, 이용실태를 진단하고 전망코자 우리협회 멀티미디어협의회와 삼성전자(주)가 공동으로 주최했다(관련기사 22쪽 참조).

### 일본 우정성 방문단 과의 오찬 간담회 개최

우리협회는 지난 3월 22일 신범식 상근부회장, 현호중 상무이사, 최성규 데이콤 상무이사등 9명의 한국측 대표와 KIMIKAKU SANO 우정성 통신정책국 기술정

책과 과장보좌등 5명의 일본측 방문단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찬에서는 양국대표간의 상관례와 일본의 정보통신분야 협회의 성격과 현황등 상호 관심사가 논의됐다. 특히 일본의 신세대통신망이용고도화협회(PNES), 신세대통신망실협회의회(BBCC), JMF와의 관계, 각 단체의 운영현황과 함께 앞으로 협회 차원의 양국 상호교류 방안이 협의됐다.

### 정보통신산업계 간담회 개최

우리협회는 지난 3월 24일 정상현 정보통신부 장관등 6명의 정보통신부 관계자와 박동호 한국유선방송협회 회장등 12명의 정보통신산업 관련단체 관계자(우리협회 남궁석 회장, 신범식 부회장 참석)가 참석한 가운데 「정보통신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보통신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각 정보통신산업 관련단체의 건의와 이에 따른 간담형식으로 이루어졌

다. 정보산업연합회의 이용태 회장은 초, 중, 고교에서의 정보화교육시행과 대학입시과목에 정보화의 포함을 검토할 것을 건의했으며, 유선방송협회의 박동호 회장은 가입자를 활용한 정보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국S/W산업협회의 황칠봉 부회장은 S/W산업은 기술력 등 자생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S/W산업에 대한 산재보험률의 인하와 불법 복제 등의 개선책 마련을 건의했다. 우리협회에서는 남궁석 회장이 공공DB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전문 서비스 제공자를 지정하여 집중육성하는 방안의 검토와 정부의 최저낙찰제와 이에 관련된 감사제도 개선의 필요성등을 제의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와 논의사항등은 앞으로 정보통신부 관련 실, 국에서 관련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28일 정보통신 관련 산업계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코자 이루어진 첫 간담회였다. ㉔

## 정보통신산업의 세계화를 선도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